

## 학내 명예교수들의 새만금 방조제와 순창지역 탐방기

대표자 진 교 훈

명예교수 연구동과 공대명예교수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명예교수 21명은 2007년 9월 6~7일 양일간 농어촌공사 사장과 순창군수의 초청으로 새만금 방조제와 순창지역 견학을 다녀왔다. 먼저 학교 당국이 여러 면에서 명예교수들을 배려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2006년)에도 이호인 부총장의 주선으로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즐겁게 견학하였다. 그때 견학을 다녀온 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였다. 이번 견학에 참석한 교수들께서도 무엇보다도 전공 분야가 다른 교수들 간에 교외로 나가서 친목도 도모할 수 있었고, 또 견학 내용도 매우 좋았다는 고평들을 해주었다.

말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금치 못했던 새만금 방조제를 직접 가보고 또 농어촌공사 측 담당직원의 친절함 안내와 새만금사업단의 김성기 단장이 해주신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상세한 경과보고와 활발한 질의응답을 듣고 나서, 참가한 몇 분 선생님들께서는 오해가 풀렸다는 말씀



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새만금 방조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고, 기왕 저지른 일이니 이제라도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을 한 분들도 계셨다.

우리는 새만금 방조제를 보고 나서 바로 순창으로 이동했다. 강인형 순창군수는 군청사에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단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군청 회의실에서 우리에게 순창군 현황에 대한 친절한 소개와, 특히 장수마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주었다. 왜 순창이 장수마을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은 순창에서 실감했다.

우리는 순창군수의 애향심과 탁월한 지도력과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필자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시기상조이며, 지방자치제는 실패작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강군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 나의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순창군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칭찬을 하는 교수들도 계셨다. 우리 일행은 강군수의 열정에 감복했고, 우리에게 보여준 친절과 환대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창 고추장 맛과, 오리나 되는 모랫길을 맨발로 걸은 것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 인문대학

고영근 (국어국문학과)

### <편서>

#### 1. 고영근(책임편집), 어학전문 국제학술지 『형태론』 9권 1, 2호.

[주요 내용] 『형태론』은 고영근 교수가 한국의 이론문법의 발전과 한국어 문법연구의 국제적 보급을 위하여 1999년 3월에 창간한 편집위원 단위의 반 연간 문법연구 학술지이며 2007년 9월 현재 18권을 내었다. 편집진은 2007년 12월 현재, 편집위원 13명, 편집자문위원 33명, 편집간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집자문위원에는 일본, 캐나다, 독일, 미국, 자유중국(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태론』의 편집 특징은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을 평점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다. 권두에 실리는 논문이 해당 호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이다. 물론 '편집후기'를 통하여 논문 배열의 기준이 명시된다. 2개 호를 뛰어 넘어 각 기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평이 붙고 연속하여 이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이 실리며 기고자와 일반 독자가 묻고 대답하는 '질의응답란'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뒷이야기'에는 문법 일반에 관한 일반 독자들의 '질의응답란'도 마련되어 있다.